

# REUTERS WEEKLY NEWSLETTER

Wednesday, Jan 2, 2019 (2019-1 호)

- > [주간 국내 일정](#)
- > [주간 해외 일정](#)
- > [국내 금융시장 전망](#)
- > [지난주 주요 기사](#)

- ◇ (초점)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월 의장의 2019 년
- ◇ (칼럼) 2019 년 금융시장 안정성의 복병은 일본
- ◇ (초점) 나스닥지수, 美 증시 주요 지수 가운데 처음으로 약세장 진입
- ◇ (칼럼) 연준 긴축에도 약세 보이는 달러...그럴만한 4 가지 이유

> [2019 년 통계청 · 한국은행 통계 공표 일정](#)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이메일: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근교 관광지에 설치된 2019 년 상징 불꽃 장식. (로이터/일리아 나이무신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월31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7(%)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7(%)
달러 대비	1,115.7	0.6%	-4.1%	12.8%	유로	1.1469	0.9%	-4.4%	14.1%
100엔 대비	1,015.9	-0.2%	-6.9%	9.0%	엔	109.56	1.5%	2.8%	3.7%
유로 대비	1,276.8	0.5%	0.2%	-0.9%	위안	6.8755	0.4%	-5.4%	6.7%
위안 대비	161.78	0.9%	1.3%	6.0%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7(%)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7(%)	다우존스	23,327.46	3.9%	-5.6%	25.1%
코스피	2,041.04	-1.0%	-17.3%	21.8%	나스닥	6,635.277	4.8%	-4.3%	28.2%
코스닥	675.65	0.3%	-15.4%	26.4%	S&P500	2,506.85	3.7%	-6.7%	19.4%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p)	YTD(%p)	2017(%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p)	YTD(%p)	2017(%p)
국고채 3Y	1.817	-0.021	-0.318	0.497	미국채 2Y	2.498	-0.137	0.607	0.693
국고채 5Y	1.884	-0.009	-0.459	0.544	미국채 10Y	2.691	-0.097	0.280	-0.021
국고채 10Y	1.948	-0.022	-0.521	0.395	CDS프리미엄	최종	주간(bp)	YTD(bp)	2017(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7(%)	한국 5Y	38.06	-0.12	-13.74	9.79
유가(WTI)	45.41	-0.4%	-24.8%	12.5%	일본 5Y	21.79	0.00	-3.34	7.88
금(현물)	1,282.73	2.1%	-1.5%	13.1%	중국 5Y	66.47	-0.42	16.96	-66.98
TR상품지수	2,371.63	0.2%	0.0%	-8.0%					

(달러/원 서울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이번 주 주간 변동률은 21 일 이후 31 일까지 변동률입니다.)

2019년 한국은행 · 통계청 통계 공표 일정

월	일	시간	자료명	월	일	시간	자료명		
1월	2	12:00	2018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	4월	4	08:00	2019년 2월 국제수지(잠정)		
	8	08:00	2018년 11월 국제수지(잠정)		10	08:00	2019년 3월 고용동향		
	9	08:00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12:00	2018년중 자금순환(잠정)			
	12:00	2018년 3/4분기중 자금순환(잠정)	11		12:00	2019년 2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10	12:00	2018년 11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12:00	2019년 2월중 통화 및 유동성			
	12:00	2018년 11월중 통화 및 유동성	12		12:00	2019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17	12:00	2018년 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7	12:00	2018 농림어업조사 결과		
	22	06:00	2018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12:00	2018년중 결제통화별 수출입(확정)			
	08:00	2018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18		12:00	2019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2:00	2015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19		06:00	2019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25	06:00	2019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12:00	2019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결과			
	12:00	2018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3		12:00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직업별 특성			
	28	12:00	2018년 앙곡소비량조사 결과		24	12:00	2019년 2월 인구동향		
	12:00	2018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12:00		2019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9	12:00	2018년 국내인구이동통계		12:00	2019년 3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2018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5		08:00	201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30	06:00	2019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12:00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			
	12:00	2018년 11월 인구동향	26		06:00	2019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12:00	2017년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12:00		2019년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31	08:00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30	06:00	2019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12:00	2018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08:00		2019년 3월 산업활동동향				
	2월	1	08:00		2019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5월	1	12:00	2019 청소년 통계
		12:00	2018년 12월 온라인쇼핑동향		2		08:00	2019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12	12:00		2018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3	12:00	2018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13	08:00		2019년 1월 고용동향		12:00	2019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14	12:00		2018년 4/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12:00	2018년 지역별 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12:00	2018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		7		12:00	2018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속보	
		15	08:00		2018년 12월 국제수지(잠정)		8	08:00	2019년 3월 국제수지(잠정)
		19	06:00		2019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		9	12:00	2019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2:00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12:00		2019년 3월중 통화 및 유동성		
		20	12:00		2018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10	12:00	2019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21		12:00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14	06:00		2019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		
22		06:00	2019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	15	08:00		2019년 4월 고용동향		
12:00		2018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16	12:00	2019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				
12:00		2018년 4/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21	06:00	2019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				
25		12:00	2018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2	12:00		2019년 1/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26		06:00	2019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23	12:00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12:00		2019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2019년 3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12:00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고용지표	24	12:00	2018년 축산물생산비조사				
27		06:00	2019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12:00	2019년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2019년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8	06:00	2019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12:00		2018년 12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29	06:00	2019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12:00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	12:00	2019년 1/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12:00		2018년 12월 인구동향	12:00	2019년 3월 인구동향					
12:00		2019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2:00	2019년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8		08:00	2019년 1월 산업활동동향	30	12:00		2019년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3월		5	08:00	2019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6월		31	08:00	2019년 4월 산업활동동향
		08:00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4			08:00	2019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6	12:00	2019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08:00	2018년 국민계정(잠정)	
	12:00	2018년 4/4분기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08:00	2019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8	08:00	2019년 1월 국제수지(잠정)	08:00		국민계정의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12	12:00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12:00		2018년 기업경영상태(속보)			
	13	08:00	2019년 2월 고용동향	5		08:00	2019년 4월 국제수지(잠정)		
	12:00	2019년 1월중 통화 및 유동성	12:00	2019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12:00	2019년 1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12	08:00		2019년 5월 고용동향			
	15	06:00	2019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	12:00		2019년 4월중 통화 및 유동성			
	19	12:00	2018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12:00		2019년 4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20	06:00	2019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	14		06:00	2019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		
	12:00	2018년 혼인·이혼통계	18	12:00		2019년 1/4분기 기업경영상태			
	21	12:00	2018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20		06:00	2019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22	12:00	2018 한국의 사회지표	21		12:00	2018년중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26	12:00	2018년산 논벼(밭) 생산비조사 결과	25		06:00	2019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12:00	2019년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1인가구 고용현황					
	27	06:00	2019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26		12:00	2019년 4월 인구동향		
	12:00	2019년 1월 인구동향	12:00	2019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2:00	2019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2:00	2019년 보리, 콩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 결과					
	28	06:00	2019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12:00		2019년 5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장래인구특별추계 - 2017-2067	27	06:00		2019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9	08:00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	12:00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도편 : 2017-2047			
	12:00	2019년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2018년 기준 귀농·귀촌인통계					
	4월	2	08:00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28	08:00	2019년 5월 산업활동동향	
3		12:00	2019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12:00	2019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월	일	시간	자료명	월	일	시간	자료명		
7월	1	12:00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0월	17	12:00	2019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	08:00	2019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22	06:00	2019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		
	3	12:00	2019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12:00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산업 및 직업별 특성			
	4	08:00	2019년 5월 국제수지(잠정)		24	08:00	2019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10	08:00	2019년 6월 고용동향		25	06:00	2019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조사		
	12:00	2019년 1/4분기중 자금순환(잠정)	12:00		2019년 9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1	12:00	2019년 5월중 여금취급기관 가계대출		28	12:00	2019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조사 결과		
	12:00	2019년 5월중 통화 및 유동성	29		06:00	2019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12	06:00	2019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		12:00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16	12:00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결과		30	12:00	2019년 8월 인구동향		
	17	12:00	2018년 국제인구이동통계		12:00	2019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8	12:00	2019년 2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12:00	2019년 9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국민대차대조표 2015년 기준 개편 결과	31		08:00	2019년 9월 산업활동동향			
	12:00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		08:00	2019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19	06:00	2019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		4	12:00	2019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12:00	2019년 보리,마늘,양파 생산량조사 결과	5		12:00	2019년 8월 비임금근로/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결과			
	23	12:00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		12:00	2018년 기업경영분석			
	24	12:00	2019년 6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6	08:00	2019년 9월 국제수지(잠정)		
	25	08:00	2019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12:00	2018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26	06:00	2019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조사		7	12:00	2019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30	06:00	2019년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8	12:00	2019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2:00	2019년 5월 인구동향	12		12:00	2019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12:00	2019년 6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3		08:00	2019년 10월 고용동향			
	31	08:00	2019년 6월 산업활동동향		12:00	2019년 9월중 통화 및 유동성			
	12:00	2019년 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4		06:00	2019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8월	1	08:00		2019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11월	19	12:00	2018년 기준 주택수용통계
		2	12:00		2019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12:00	2019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6	08:00		2019년 6월 국제수지(잠정)		20	06:00	2019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
		8	12:00		2019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12:00	2019년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9	12:00		2019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2:00	2018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	
		13	12:00		2019년 6월중 통화 및 유동성		12:00	2018년 기준 우수업조사 잠정결과	
14		06:00	2019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	21	12:00		2019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08:00		2019년 7월 고용동향	12:00	2019년 3/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21		06:00	2019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	22	12:00		2019년 고추,참깨 생산량조사 결과		
12:00		2019년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25	12:00	2019년 사회조사 결과				
12:00		2019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	26	12:00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현황				
22		12:00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12:00	2019년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2019년 2/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27	06:00	2019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조사				
27		06:00	2019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조사	12:00	2019년 3/4분기중 여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12:00		2019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2019년 9월 인구동향					
12:00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12:00	2019년 10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8		12:00	2018년 출생통계(확정)	12:00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잠정결과				
12:00		2019년 6월 인구동향	28	06:00	2019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12:00		2019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9	08:00	2019년 10월 산업활동동향				
12:00		2019년 2/4분기중 여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12:00	2019년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9		06:00	2019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	08:00		2019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12:00		2018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방식 집계 결과	3	08:00	2019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12:00		2018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12:00	2019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30		08:00	2019년 7월 산업활동동향	4	12:00		2018년 생령표		
12:00		2019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5	08:00	2019년 10월 국제수지(잠정)				
12:00		2019년 7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9월		3	08:00	2019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12월		6	12:00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
		08:00	2019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	9			12:00	2019년 일가정 양립지표	
		4	08:00	2018년 공공부채계정(잠정)			10	12:00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
		12:00	2019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11			08:00	2019년 11월 고용동향	
		5	08:00	2019년 7월 국제수지(잠정)			12:00	2019년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	
	11	08:00	2019년 8월 고용동향	12:00		2019년 10월중 여금취급기관 가계대출			
	17	12:00	2019년 2/4분기 기업경영분석	12		12:00	2018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18	06:00	2019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12		12:00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12:00	장래가구추계 : 2017~2047	13	06:00		2019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19	12:00	2019년 7월중 통화 및 유동성	12:00		한국의 사회동향 2019			
	12:00	2019년 7월중 여금취급기관 가계대출	16	12:00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 2017~2047			
	20	12:00	2019년 상반기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17		12:0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24	06:00	2019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12:00		2019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			
	12:00	2018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18	12:00		2019 북한인구추계지표			
	25	12:00	2019년 7월 인구동향	12:00		2018년 기준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12:00	2019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9	08:00		국민계정의 2015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			
	26	06:00	2019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조사	12:00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12:00	2019년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	06:00		2019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12:00	2018년 기준 전조사업체조사 잠정결과	23	12:00		2018년 지역소득(잠정)			
	27	12:00	2019 고령자 통계	12:00		2019년 가을배추 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			
	12:00	2019년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4	12:00		2018년 중·장년층행정통계 결과			
	30	08:00	2019년 8월 산업활동동향	12:00		2018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잠정결과			
	10월	1	06:00	2019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26	12:00	2019년 10월 인구동향	
		08:00	2019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12:00		2019년 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2	12:00	2019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		27	06:00	2019년 12월 소비자물가동향조사	
		8	08:00	2019년 8월 국제수지(잠정)		12:00	2019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1	12:00	2019년 2/4분기중 자금순환(잠정)		12:00	2018년 기준 퇴직연금통계		
		14	12:00	2019년 상반기중 결재통화별 수출입(잠정)		12:00	2018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15	12:00	2019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30	08:00	2019년 11월 산업활동동향	
		12:00	2019년 8월중 여금취급기관 가계대출	31		06:00	2019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12:00	2019년 8월중 통화 및 유동성	08:00		2019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16		06:00	2019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12:00	2019년 1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08:00	2019년 9월 고용동향								



## 주간 국내 일정

### <1 월 2 일(수)>

- IHS 마르키트 12 월 한국 제조업 PMI(09:30)
- 통계청, 11 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 <3 일(목)>

-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 KDI, 북한경제리뷰 12 월호(12:00)

### <4 일(금)>

- 한은, 12 월말 외환보유액(06:00)

## 주간 해외 일정 (한국시간)

### <1 월 2 일(수)>

- 중국, 12 월 차이신 제조업 PMI 확정치(10:45)
- 유로존, 12 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확정치(18:00)
- 미국, 12 월 마르키트 제조업 PMI 확정치(23:45)
- 일본 · 뉴질랜드 · 스위스 · 러시아 등 휴장

### <3 일(목)>

- 유로존, 11 월 총유동성(M3) 증가율(18:00)
- 유로존, 11 월 가계대출(18:00)
- 미국, 주간 모기지 마켓지수(21:00)
- 미국, 12 월 챌린저 해고건수(21:30)
- 미국, 12 월 ADP 전국고용동향(22:15)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22:30)
- 미국, 12 월 공급관리자협회(ISM) 뉴욕지수(23:45)
- 미국, 12 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지수(자정)
- 일본 휴장

### <4 일(금)>

- 미국, 12 월 전미차량(트럭)판매(05:30)
- 일본 12 월 외환보유고(08:50)
- 일본 12 월 닛케이 제조업 PMI(09:30)
- 중국, 12 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10:45)
- 유로존, 12 월 마르키트 서비스업 PMI 확정치(18:00)
- 유로존, 12 월 소비자물가지수(CPI)(19:00)
- 유로존, 11 월 생산자물가(19:00)
- 미국, 12 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22:30)
- 미국, 12 월 실업률(22:30)
- 미국, 12 월 마르키트 서비스업 PMI 확정치(23:45)

<시장 전망은 다음 주부터 발간합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초점)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월 의장의 2019년**

워싱턴/샌프란시스코 (로이터)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취임 첫 해인 2018년 점점 혼조된 시그널을 보내는 경제지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속에 때로는 투자자들을 겁에 질리게도 했다가, 안심시키기도 하며 정책 소통에 있어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주식시장의 드라마틱한 슬럼프와 채권 수익률 하락과 함께 2018년이 저문 가운데, 2019년 파월 의장은 역사상 어떤 연준 의장보다도 대본이 없는 공개 발언을 많이 하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의장직에 오른 파월 의장은 의회 및 대중과 의사소통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의원들과도 자주 만났고, 최근 수십 년간 모두 경제학자들이었던 과거 연준 의장들보다 덜 경제 교과서같은 스타일로, 소탈하게 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런 스타일은 인선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필한 것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투자자들은 연준이 얼마나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힌트를 얻고자 매달렸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초래했다.

노던트러스트의 칼 타넨바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월 의장이 연준의 현 상황을 어두운 방에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표현한 것을 가리키며 "내 주변에 이 말에 아주 화가 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은유는 연준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파월 의장의 평가이자 주의해야 할 이유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었지만, 타넨바움은 이 말이 투자자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준은 그저 어둠 속에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게 문제다. 연준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불을 비춰줄 노력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금리를 인상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이 단어를 네 차례 사용했다.

그러나 팀 듀이 오레곤대 경제학 교수는 연준이 2019년에도 꾸준히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한편 파월 의장이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금리 인상은 감속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이 메시지는 좀 영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주 분명한 가이드선도 단점이 있다.

12월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자동운항모드"로 지속될 것이며, 변화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과거 연준의 가이드선과 일관된 것이나, 그가 보다 유연성을 신호하지 않은데 대한 실망감으로 증시는 하락했다.

며칠 뒤 파월 의장의 측근이자 FOMC에서 영구 표결권을 가지고 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보다 소프트한 입장을 전달했고, 증시는 상승했다.

모든 연준 의장들은 전 세계를 흔들었다. 지난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의장은 채권매입을 축소할 것임을 시사해 세계 증시의 급락을 초래했고, 그보다 앞선 1996년 앨런 그린스펀 당시 의장은 자산 가격의 "비이성적 과열"을 언급해 증시를 하락시키려 했지만 효과는 단기에 그쳤다.

그러나 과거 의장들은 지금처럼 백악관의 공개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정책을 운용한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또한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더욱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글로벌 성장 약화가 미국 고용시장의 견실한 증가세와 강력한 국내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중국과의 무역전쟁, 연방정부 부분 섀다운 등도 불확실성을 더해 연준이 2019년 한 차례조차도 금리를 인상할 수 없을 것으로 시장은 베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월부터 파월 의장은 연준이 회의를 열 때마다 기자회견을 갖고, 연준의 행보와 생각에 대해 보다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이런 변화로 파월 의장은 2019년에는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총 여덟 차례 기자회견을 갖게 된다.

그만큼 시장을 들쭉시는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진다.

앨리스 리블린 전 연준 부의장은 연준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더 강력하게 밝히기 좋은 시점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자신이 연설 중 '추측한다(guess)'는 말을 사용했을 때 그린스핀 전 의장이 했던 말을 회고하며 "(그는) '추측한다'는 말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말을 쓰지 말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일단 알겠다고 했지만...우리는 모르지 않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칼럼) 2019년 금융시장 안정성의 복병은 일본**

(※ 이 칼럼의 내용은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런던 (로이터브레이킹뷰스) - 2019년 글로벌 금융시장에 가장 큰 위협요인은 미국의 금리 인상도, 유럽중앙은행(ECB)의 채권매입 종료도 아닌 일본은행(BOJ)이 될 전망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가 초완화 통화정책을 약간만 조정해도 다른 예측 가능한 변화들 보다 훨씬 더 크게 글로벌 자산 가격이 출렁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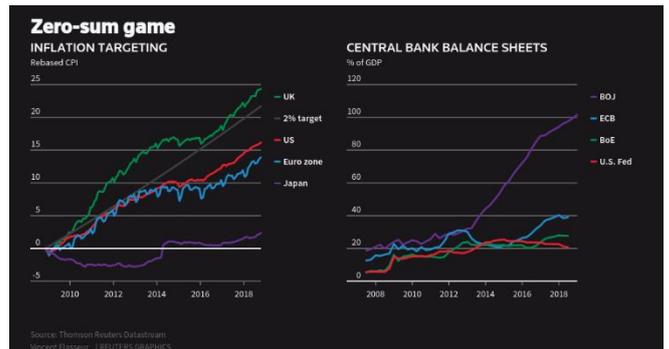
BOJ는 이미 일본의 GDP 규모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이 중단한 이후까지 대차대조표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BOJ의 정책에 어떤 변화라도 시사된다면, 수년간 글로벌 중앙은행의 유동성 투입으로 리스크와 보상에 대한 판단이 왜곡된 투자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2018년 중 BOJ가 부양 축소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채권과 환율은 동요했다. 구로다 총재는 진퇴양난이다. BOJ는 2% 물가상승률 달성이 요원하다. 그러나 BOJ의 통화정책은 지역 은행들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지역 은행들의 약 절반 가량은 지난 2년여 동안 대출사업에서 적자를 보고했다.

통화정책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위험이 있다면, BOJ는 10년물 JGB 수익률이 제로 부근의 보다 폭넓은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0.1%인 예금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신호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JGB 수익률은 즉각 급등할 것이다. BOJ가 보유한 JGB 규모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워 거래의 유동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다른 시장들에서도 여파가 감지될 것이다. 일본 투자자들은 더 나은 수익률을 좇아 해외로 나갔는데, 국내 수익률이 충분히 상승한다면 국내로 돌아올 것이다. 일례로 일본 투자자들은 9월에만 외화 채권을 4조 7000억 엔어치 매입했다.

미국 국채뿐 아니라 프랑스와 스페인 국채가 시장 규모 대비 가장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일본 투자자들의 역송금시 이들 시장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통화 헤징 비용이 상승해 일본 투자자들은 높은 헤징 비용을 부담하기보다 해외 자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익스포저를 헤지하지 않은 이들은 더 빨리 빠져나올 것이다.

2019년에도 금리를 계속 인상할 걸로 보이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행보는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구로다 총재가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할 더 큰 잠재력을 가진 이유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 나스닥지수, 美 증시 주요 지수 가운데 처음으로 약세장 진입**

뉴욕 (로이터) - 나스닥종합지수가 21일(현지시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약세장에 진입해, 미국 증시의 사상 최장기간 강세장이 곧 끝날 수 있다는 우려에 불을 지폈다.

나스닥지수는 이날 지난 8월 29일 기록한 사상 최고 증가에서 21.9% 하락한 채 마감해, 약세장 진입 기준으로 여겨지는 하락률 20%를 넘어섰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중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한 것은 나스닥이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9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최근 러셀 2000 스몰캡지수와 다우존스 운송지수 등 여러 지수들이 앞서 약세장에 접어든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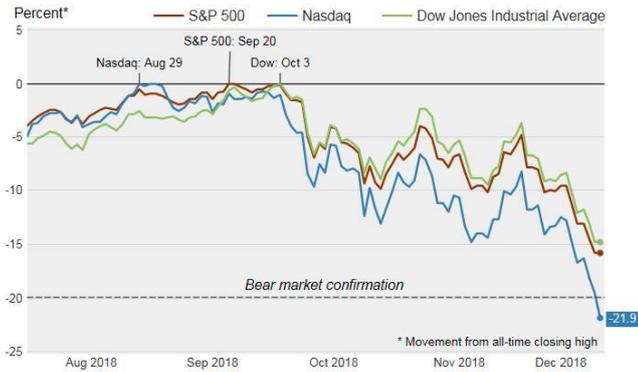
S&P500 지수는 편입종목 가운데 60% 이상이 20% 이상 하락했지만 아직 약세장에 진입하지는 않았다.

S&P500 지수는 9월 20일 사상 최고종가에서 17.5%가, 다우지수는 10월 3일 사상 최고종가에서 16.3%가 하락한 상태다.

나스닥지수의 하락은 이른바 FAANG 주식 등 시장을 선도했던 주식들에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 The bear approaches

The Nasdaq is in a bear market. Other major U.S. stock indexes not far behind



Source: Thomson Reuters Datastream/ Stephen Culp 12/21/2018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나스닥지수를 3% 가까이 하락시키며 2017년 8월 이후 최저 증가로 끌어내린 매도세는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네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지 이틀 만에 일어났다. 연준은 지난 10년 가까이 증시를 뒷받침해왔던 저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거둬들이고 있다.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역시 투자자들을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 밸류에이션이 높은 업종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지난 8월 29일 사상 최고 종가를 끝으로 종료된 사상 최장기간 강세장동안 나스닥지수는 2009년 3월 9일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에서 539% 이상 상승했고, 이 기간 재투자된 배당금을 포함해 총 611%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S&P500 지수의 상승률은 331%, 총 수익률은 425%에 불과했다.

나스닥지수는 8월 말 이후 20% 이상 하락했지만, 2009년 3월 저점 대비로는 400% 가까이 상승했고, 총 수익률은 456% 이상이었다.

과거 나스닥 약세장은 오래 지속됐고, 하락폭도 컸다. 지난 2007년 10월 31일부터 2009년 3월 9일까지

지속된 이전 약세장동안 나스닥지수는 55.6%가 하락했다.

한편 일부 투자자들은 S&P500 지수의 현재 강세장이 끝났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전략가들은 여전히 S&P500 지수가 내년에도 완만한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칼럼) 연준 긴축에도 약세 보이는 달러...그럴만한 4가지 이유

(※ 이 칼럼은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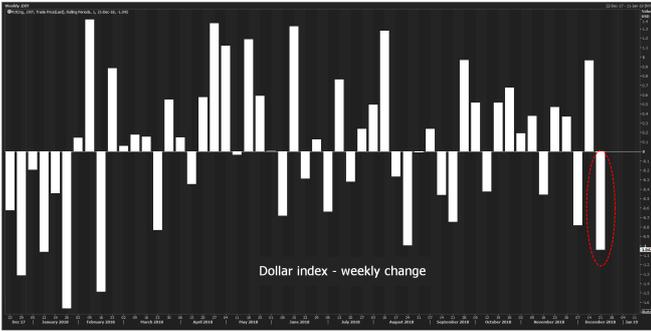
런던 (로이터) - 경제에 먹구름이 밀려들고, 미국의 경기침체가 임박하고, 주가와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미국 국채 수익률곡선이 역전에 근접하면, 대개는 달러 강세를 예상하게 된다.

투자자들이 위축되고, 미국의 자본은 고국으로 돌아가며, 세계에서는 안전성과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 이 모두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들이다.

현재의 연준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연준은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들 중 사실상 유일하게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금리와 미국 자산의 수익률이 여타 선진국들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19일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금리를 2.25~2.50%로 인상했다. 게다가 내년에도 부양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내비쳤다. 그러나 달러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했다.

20일 장종 달러 가치는 올 들어 최대 수준의 일일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현 추세가 유지되면, 달러 가치는 일주일 기준으로 지난 2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내게 된다. 지난 2월은 여러 변동성 지수의 급등세 탓에 주식시장 불안감이 폭발한 시기였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일까?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몇가지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을 수는 있다.

첫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건 시장의 포지셔닝이다.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은 달러 매수(long) 포지션을 대규모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이 다가오면서 포지션을 일부 되돌리려는 편향이 나타난다.

지난주 발표된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AML)의 월간 펀드매니저 설문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쏠려있는' 거래는 달러 매수였다.

미국 선물시장에서 헤지펀드 등 투기적 거래자들은 지난 6월부터 달러 순매수(net long) 포지션을 유지해왔다. 그리고 이달 초 순매수 포지션 규모는 310억달러를 넘는 수준까지 늘었다. 근 2년래 최대 규모다.

지난주 달러 순매수 포지션이 약 285억달러로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수주, 수개월 동안 포지션이 되돌려질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달러 가치가 내년에 올 들어 기록한 상승분을 반납할 것이라는 시장 컨센서스와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로이터가 60명 이상의 통화 애널리스트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달러 가치는 약 5%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환율은 상대적이다. 따라서 미국의 통화정책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반쪽짜리 설명밖에 내놓을 수 없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가정할 경우, 연준이 앞서 신호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 여타 중앙은행들이 비슷한 수준의 정책기조 변화를 나타낼 경우에만 달러 가치는 하락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유로존, 영국, 일본의 정책기조는 이미 완화적인 수준에 놓여있다. 유로존(예치금 금리)과 일본의 금리는 마이너스(-)다. 때문에 이들 중앙은행들은 완화기조를 더 높일 여지가 적다.

이에 따라 정책기조 변동을 고려하면 연준은 예상보다 비둘기적인 기조를 취했고,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 영란은행(BOE)은 중립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달러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선물시장에 따르면,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한 차례라도 추가 인상할 가능성은 50%다. 2020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전일 연준은 내년 2회 금리 인상, 2020년 1회 금리 인상 신호를 내비친 바 있다.

머니마켓의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정책기조를 더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과거 시장은 연준보다도 더욱 매파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수년 동안은 금리 인상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왔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정책사이클이 어디에 위치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스탠드뱅크의 스티브 배로우가 지적했듯, 한계수익의 감소, 즉 긴축사이클 초기 혹은 시작 전의 금리 인상은 긴축사이클 후기 금리 인상보다 통화가치를 더 크게 부양한다.

배로우는 "지금처럼 시장 내에서 과잉긴축 우려가 높을 때 금리 인상은 달러 약세 요인으로 변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연준은 긴축을 지속하지 말라는 백악관의 전례없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외환시장의 일일 추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달러 가치를 압박하고 유로화 가치를 부양하는 장기적, 구조적 요인이다. 이 점이 마침 지난 24 시간 동안 다시 부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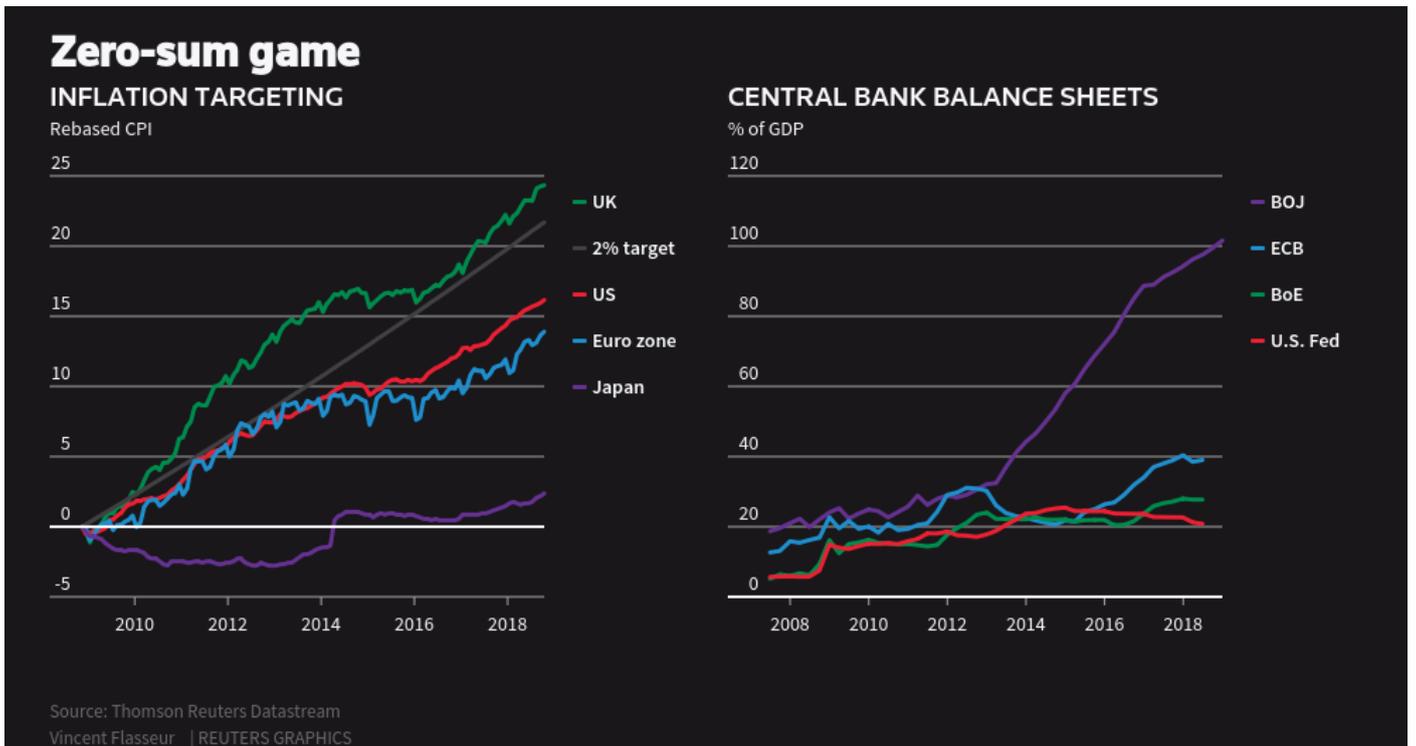
이번 주 미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3분기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1248억달러로 확대됐다. 10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2분기에 비해 236억달러에 늘었는데, 이는 역대 공동 2위에 해당하는 확대폭이다.

한편 ECB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유로존의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계절조정 기준 약 230억유로를 기록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유로존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840억유로를 나타내고 있다.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유로존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의 사상 최대 기록인 3534억유로에 근접하게 된다.

이들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달러의 약세는 그렇게까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 및 시장 환경이 나빠지는 등 달러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지만 말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 The bear approach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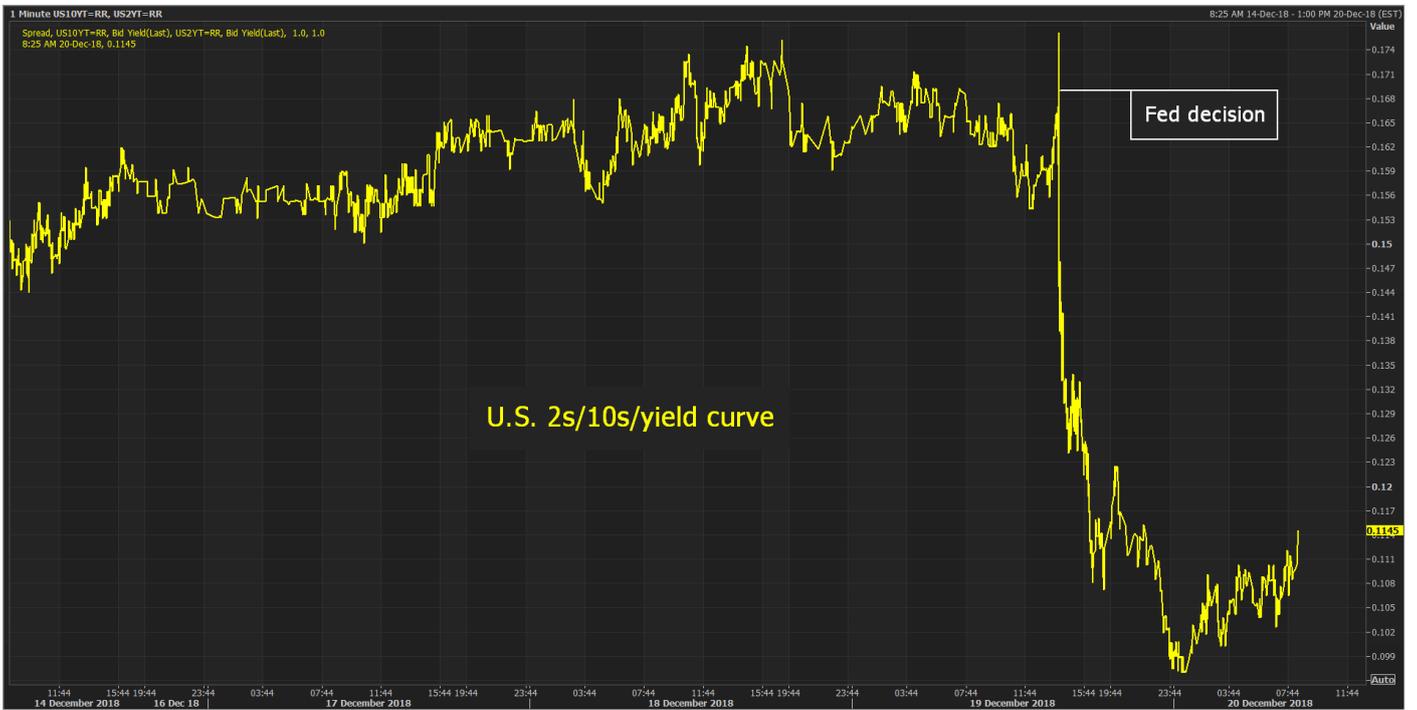
The Nasdaq is in a bear market. Other major U.S. stock indexes not far behind



Source: Thomson Reuters Datastream/ Stephen Culp 12/21/2018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